

4→2.1 내신 올린 비결은 뚜렷한 목표와 나만의 공부법



선배들의 전형별 합격기
학생부교과전형 ⑥



최우석

국민대 정보보안암호수학과 1학년
(강원 강릉명륜고 졸업)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고1 성적은 다소 부족했다. 학생부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민 끝에 교과 성적을 높여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후 최우석씨는 선택의 순간마다 교과전형 진학에 유리한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극적으로 성적을 올려 국민대 정보보안암호수학과에 진학한 우석씨의 교과전형 준비 과정을 들어봤다.

취재 김민정 리포터 mjkim@naeil.com

Q. 교과전형을 주력 전형으로 선택한 이유는?

고2 때부터 대입에 관심을 두면서 교과전형, 종합전형, 정시 중에서 어떤 전형을 준비할지 고민했습니다. 정시는 수능 당일 컨디션에 따라 변수가 있다는 점이 부담됐고, 종합전형은 친구들의 학생부와 비교했을 때 다소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고2부터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비교과 활동에 신경 쓰다가 내신을 챙기지 못하면 교과전형도 힘들겠더라고요. 고1 성적은 교과전형에 유리하지 않았지만 내신 준비는 중학교 때부터 해오던 거라 익숙하고 자신이 있었어요. 성적을 좀 더 올려 교과전형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죠.

Q. 학교 성적은 어떻게 관리·유지했나?

고1 때는 대학 입시에 관심이 없어 원하는 대학·학과를 가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성적이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점수에 대한 뚜렷한 목표는 없었지만 꾸준히 공부를 한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고1은 중학교에 비해 공부량이 많아진 고교 시험에 적응하며 공부법을 찾아가는 시기였거든요. 제 내신으로 원하는 대학에 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서부터 성적 향상에 대한 욕구가 생겼고 고1 평균 4

등급대였던 내신 성적을 고2~3 때 노력해서 올렸어요. 최종 교과 성적은 평균 2.1등급이었습니다.

Q. 수능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수능 공부를 늦게 시작했기에 선택 과목을 고를 때의 기준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이었어요. 고1 때 문법을 공부해보니 잘 맞지 않더라고요. 문법 비중이 높은 <언어와 매체> 대신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어요. 수학은 개념을 충분히 이해한 후 문제에 적용하면서 답을 구하는 과정이 저에게 잘 맞았고 좋았습니다. <미적분>을 선택했는데 특히 수능 수학은 한 문제에 여러 개념들이 적용되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문제를 풀었던 적이 있어요. 영어는 4등급에서 1등급까지 성적을 올린 과목이었는데요. 수능에서는 2등급을 받긴 했지만요. 단편적인 암기가 잘 안 맞았기 때문에 영어에 익숙해진다는 생각으로 지문을 쭉 읽어나갔어요. 문제를 계속 풀면서 영어의 감을 끌어올리는 데 주안점을 뒀죠. 내신 영어도 교과서 지문을 통째로 암기하면서 문장이 익숙해지도록 공부했더니 훨씬 편해졌어요. 이후 수능 영어 공부를 할 때도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고 새로운 단어나 특이한 문장 구조가 나와도 바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과탐은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을 선택했습니다. 이 두 과목은 고교 선택 과목이라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었어요. 내신 대비를 하면서 다진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 풀이에 집중하며 공부했습니다.

Q. 교과전형을 염두에 둔 후배들에게 조언해준다면?

친구들보다 한발 뒤쳐져 있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고1을 마무리하는 무렵에야 내신 공부법을 터득했고, 학생부도 제대로 못 챙겼고, 수능 공부도 늦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교과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목표를 뚜렷하게 세운 것이 제겐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교과전형은 무엇보다도 내신이 중요하기에 자신만의 공부법이 필요했고, 선택 과목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을 골랐어요. 원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2개 영역 합 4~5등급 이내의 성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국어를 과감히 버렸습니다. 수능 국어 성적을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 경우 모든 수능 과목을 준비하려 했다면 오히려 최저 기준을 못 맞췄을 것 같아요. 종합전형은 내신, 학생부, 면접까지 준비해야 하지만 교과전형은 내신 위주로 챙기면 되니 확실한 장점이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해요. 후배들도 자신의 장점을 파악해 주력 전형을 정하길 바랍니다.

선배의 선택 과목

TIP

내신은 수강 인원이 많은 과목 이수
수능은 잘할 수 있는 과목으로 선택

고1 내신 성적이 나빴고 성적을 올려야 했기 때문에, 학교 내신 과목은 수강 인원이 많은 과목을 선택했어요. 과탐 I 은 4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었지만, 수강 인원이 많은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을 선택했어요. 덕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괜찮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내 최상위권은 과탐 I 을 4과목 모두 이수하는 경향이 있어, 우수한 학생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어요. 반면 과탐 I 을 두 과목만 선택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를 이수했는데 많은 내용을 담은 보조 교재를 암기해야 해 흥미도 떨어지고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수능은 잘할 수 있는 과목으로 선택했고, 수능 직전에는 <미적분> <영어> <지구과학 I>을 전략 과목으로 삼아 공부했습니다. ⑧